

## 高麗王朝代 高麗와 교류하였던 諸國과 高麗의 服飾制度에 관한 研究(2-4)

—— A.D 960-1142년 사이 200년간 北宋, 遼와 교류당시의 高麗服飾 ——

同德女子大學校 自然科學大學 家政學科

教授 任 明 美

目 次	
第一章 序論	1. 北宋朝 賜與冠服制
第一節 研究目的	2. 唐,宋式 高麗의 公服制
第二節 研究範圍와 內容	第三節 高麗와 遼와의 關係
第三節 研究方法	第四節 遼와교류 당시 高麗服飾
	1. 遼朝 賜與 冠服制
第二章 北宋, 遼와 교류 당시 高麗服飾	
第一節 高麗와 北宋과의 關係	第三章 結論 및 要約
第二節 北宋과 교류 당시 高麗服飾	○ 參考文獻

## 第一章 序 論

## 第一節 研究目的

본 연구는 고려왕조 500년의 服飾에 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고려왕조와 교류 관계에 있었던 漢族王朝과 東北方 諸王朝와의 관계 고찰 및 諸王朝의 복식제도 고찰을 통해, 복식 관련 자료가 미비한 고려왕조대 복식제도를 밝히 고자 하는데 있다.

## 第二節 研究範圍와 內容

본 연구는 고려왕조 500년의 복식제도 전반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의 부분 연구로, 고려왕조 복식 전반에 관한 고찰은 다음과 같이 전개코자 하며, 본 연구는 그 중 두번째 연구 네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北宋, 遼制를 並用한 200여년간의 고려

복식제도에 관한 연구(2-4)”이다

1. 金國초, 唐制를 수용한 신라 복식 착용 40여년간의 복식(AD918-960)(1)
2. 五代, 後周의 服制에 준한 制定服制와 北宋, 遼制를 並用한 200여년간의 복식.
- 가. 오대중국과 고려와의 관계고찰 및 그 복식제도에 관한 연구(2-1)
- 나. 북송과 고려와의 관계고찰 및 북송의 복식제도에 관한 연구(2-2)
- 다. 요와 고려와의 관계고찰 및 요의 복식제도에 관한 연구(2-3)
- 라. A.D960-1142년 사이 북송, 요와 교류 당시 고려복식(2-4)
3. 요 패망 후 인종대, 송사 서긍의 고려도경을 통해서 본 복식제도(3)(AD.1122-1142)
4. 의종대 상정복제와 남송, 금제를 병용한 100여년간의 복식(94)
5. 금 패망 후 원복속기 100여년간의 복식제도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A.D.1124-1370)(5)

## 6. 원 패마후 22여년간 明朝복식 수용복제(A.D. 1370-1392)(6)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연구목적, 연구범위와 내용, 연구방법을 밝히고, 제2장에서 北宋, 遼와 교류당시 高麗服飾을 고찰하고자 하는데, 第1章에서, “高麗와北宋과의 관계”를 고찰한 다음, 제2절에서, “복송과 교류당시 고려복식”에 관한 것을, 1) “北宋朝 對高麗賜與冠服制”라는 주제 아래 國王冊封官職, 爵勳, 號를 이해하고, 비록 冊封시 法定 祭, 大禮服은 아닐지라도 北宋과 교류기간 동안 고려국왕에게 내린 朝, 公(常), 便服 범주의 小禮服사여가 있었음을 보고, 또한 고려가 北宋, 遼와 교류기간동안 복식관계 禮制를 制定하는 사항을 살펴, 이와같은 制定사항이 宋朝의 禮制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추정을 통해, 이상과 같은 고찰내용을 복송과 교류당시 고려복식의 부분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2) “唐, 宋式 高麗의 公服制”라는 주제아래, 北宋, 遼, 高麗 3國이 建國初 대개 80여년간 가량의 계속되는 상호전쟁으로 인해 禮服制가 어느 나라에서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상황중에, 대개 朝, 公(常)服등의 小禮服으로 祭, 大禮를 실행하는 사료를 보면, 고려 역시 百官의 公服制는 중요한 行禮服이었고, 高麗는 唐, 五代로 이어진 後周의 制度에 준하여 制定한 光宗11年 制定 公禮服을, 北宋 遼와 교류 당시 200여년간을 일관되게 着用함을 史料를 통해 이를 考察하고, 初期 紫, 丹, 緋, 綠 四色公服制가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 紫, 緋, 綠, 靑으로, 또 紫, 緋, 綠, 靑이 紫, 緋, 綠의 服色制로 바뀌는가를 추정, 고찰하여, 이를 北宋과 교류 당시 고려복식제도에 대한 부분 연구로 다루고, 第3節, “高麗와 遼와의 관계고찰 및 遼와 교류당시 高麗의 복식제도”부분에서는, 1) “高麗와 遼와의 관계”를 考察하고, 2) “遼朝賜與冠服制”라는 주제 아래, 高麗가 北宋, 遼와 교류 200여년 기간동안, 10회 宋朝, 22회 遼朝의 冊封을 받게 되는데, 宋朝 賜與冠服制 고찰 부분에서 보면 冊封時 國王冠服賜與는 없었던 반면, 遼朝 冊封時 國王賜與冠服制는 이후 歷代 王朝로 定例化되는 배경적인 것과 고려국왕에게 내리는 ‘賜與官職, 爵勳, 號’를 통해 고려가 교류관계에 있었던 諸國의 해당 冠服制를 살펴, 고려국

왕에게 사여한 遼朝의 사여관복제를 이해하고, 이를 遼朝와 교류 당시 고려복식제도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로 간주하고자 한다.

### 第三節 研究方法

- 1) 正史類, 總書類, 經書類, 其他史類,
- 2) 研究書, 研究論文(中, 日, 韓, 英書 其他) 등을 中心으로 考察한다.

## 第二章 北宋, 遼와 교류 당시 高麗服飾

### 第一節 高麗와 北宋과의 관계

五代後周가 10余年만에 멸망하고, 後周의 節度使 趙光胤이 後周 恭帝의 禪位를 받아 開國한 후 (960) ‘宋’이라고 하였다. ‘宋’은 開國後 元에 의해 敗亡하기까지 (1279) 319年間 존속하였던 왕조로 唐敗亡後 五代十國의 혼란기를 거쳐 唐을 이은 傳統漢族王朝로 자처하였다. 東北方에서 일어난 異民族王朝인 ‘遼’를 멸망시키고 새로 일어난 異民族王朝인 ‘金’(金1115-1279)에 皇帝와 皇后가 붙잡혀간 상황에서 江南의 臨安으로 首都를 옮긴 뒤 建國하고, ‘金’과 대치하며, 元에 敗亡하기까지 존속하였던 154年間을 ‘南宋’이라고 하였다.

高麗光宗11年(960), 北宋이 일어나고, 高麗와 北宋과의 관계는 光宗13年(고려건국45年, 복송건국 4年되던 해) 宋太朝 建德1年, 太朝가 사신을 보내 光宗을 冊封하려 하였으나 해난사고로 冊封은 실시되지 못하고 외사 전달만 있었다. 이후 고려는 乾德2年부터 宋의 年號를 사용하게 되고, 光宗 13年, 宋 建隆1년부터 欽宗 靖庚元年(高麗仁宗4年 : 1126)까지 164年間 계속되었다.

그러나 麗, 宋관계는 교류기간 164年間을 일관되게 원만한 교류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은 아니며 光宗 13年 이후 成宗 12年까지 (963-993) 30年間, 麗·宋관계는 순조로왔고, 30年사이 고려는 건국에 필요한 제반제도를 唐, 宋制에 입각하여 定立하고, 體制를 정비하여 내실을 기하였다.

東北方에서 일어난 遼는 高麗에 대해 太祖이래 계속 호의를 베풀고, 親交를 원하였으나 太祖는

통일신라와 南,北朝로 相存하였던 발해국을 멸망시킨 나라라 하여 적대감과 배척의식을 갖고 있었고, 太祖 이래 이와같은 의식은 지속되었기 때문에 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불안의식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遼가 드디어 成宗12年, 80萬 대군으로 고려를 침공하므로, 고려는 成宗13年, 契丹에 굴복하여 契丹의 年號를 사용하고, 請婚까지 하는 상황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5년 뒤 穆宗2年, 다시 宋과 국교관계를 재개, 文化, 經濟의인 관계는 지속하면서 顯宗7年에는 宋의 年號사용을 재개하는 관계개선이 있었으나 同王9年, 契丹의 3次의 침입으로 다시 국교는 단절되고, 同王11年, 다시 契丹에 굴복하게 됨으로 麗,宋관계는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穆宗2年부터 顯宗21年까지 간헐적으로 유지되어오던 32年間の 관계는 文宗26年 北宋朝의 간청으로 국교를 再開하기까지 43年間 정식 通交는 끊기게 된다.

43年間 끊겼던 通交는 文宗26年 再開되어 54年間 지속되나 北에서 일어난 ‘金’에 의해 멸망당하고, 仁宗2年 南宋이 일어나므로 다시 끊기게 되었다.

南宋과의 관계는 仁宗5年(1127) 建炎1年부터 高麗明宗22年(1192: 南宋紹熙3年)까지 65年間을 끝으로 마감하였다. 高麗와 北宋과의 外交관계 通斷을 時期別로 보면, 第1期(962: 光宗13-994: 成宗13)는 朝貢, 冊封, 軍援과 出兵의 外交관계

第2期(1003: 穆宗9)는 고려가 契丹의 침공을 받고 있었던 때로 宋의 軍援을 교섭하였으나 宋 역시 내적 안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교가 단절된다.

第3期(1071-文宗25-1126: 仁宗4) 宋의 요청으로

국교를 再開하고, 고려를 배후 세력으로 삼으려고, 宋이 고려에 대해 호의를 많이 베푼 시기이다.<sup>1)</sup>

전반적으로 麗, 宋관계는 우호적이었고, 정치적인 관계보다 경제, 문화적인 관계가 支配的이었으며, 고려는 宋의 유교적 體制에 입각하여 전반적인 국가 제도를 확립하였다.

〈圖1〉은 麗, 宋, 遼 三國 교류 당시 地圖이다.

## 第二節 北宋과 교류 당시 高麗服飾

### 1. 北宋朝 賜與 冠服制

高麗와 北宋은 光宗13年부터 仁宗4년까지 164年間 교류하는 중에 國交의 通斷을 계속하면서, 光宗12년부터 成宗12년까지 사이에, 光宗15(964), 23年(972) 2回, 景宗元年(976), 2年(977)<sup>2)</sup>, 3年(978) 3回, 成宗2年(983), 4年(988), 9(990), 11(992)年 5回, 모두 10회에 걸쳐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冊封하였다.

國王 冊封時 賜與 官職, 爵勳, 號를 唐, 宋制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高麗는 宋이 成宗2年 王을 冊封한 것에 대해, 「...宋의 一品職이며, 位는, 三師의 階에 올랐던 것...」<sup>3)</sup>이라되어 있고, 4년에도 왕을 冊封하고, 「...一品 官職이며, 位는 三師의 階」를 내린 것으로...」<sup>4)</sup>라 되어있는 것을 보면, 宋은 高麗王에 대해 一品官職, 三師位의 官職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景宗元年 冊封時 내린 ‘光祿大夫’ 文散階는 唐, 宋制의 從二品 벼슬이고, ‘食色三千戶’는 唐, 宋制의 國公爵인 從一品, 唐制, 從二品職이다. 또 ‘太傅’은 太師, 太傅, 太保의 三師制의 하나로, 宰相, 使相 등에게 加하는 官職으로<sup>5)</sup> 三師는 古代三公과 같은 官職이며<sup>6)</sup> 唐代三師는 正一品 벼슬이었다.<sup>7)</sup>

1) 金渭顯, 『遼金史研究』, 裕豐出版社, 1986, pp.195-196.

2) 宋史, 卷487, 列傳 第246, 外國3, 高麗條의 宋史에는 冊封한 기록이 있으나, 高麗史에는 없다.

3) 高麗史, 卷3, 世家, 卷第3, 成宗2年.

4) 高麗史, 卷3, 世家, 卷第3, 成宗4年.

5) 勿等撰, 『歷代職官表, 下』, 上海古籍出版社, 1290.

6) 바로 앞책, 同面.

7) 바로 앞책, p.1292.

‘使持節’은 唐에서 ‘總管’에게 加하는 號<sup>8)</sup> ‘總管’은 從二品職이다. ‘食邑一千戶’는 唐, 宋 모두 從二品職에 내리는 職이다.

또 成宗2년에는 ‘上柱國’이라는 勳爵과 함께 食邑二千戶를 내리는데, ‘上柱國’은 唐, 宋 制의 正二品에게 내리는 勳작으로, 이후 同王11년까지 사이에 사여 관직, 勳작, 호는 대개 위와 같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宋은 高麗王에게 食邑一千戶에서 三千戶 사이, 食實封 四百戶에서 五百戶 사이, 一品에서 三品 범위의 관직과 勳작과 호를 사여 하였고,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宋은 高麗王 冊封時 冠服사여는 없었다.

그러나 164年間の 교류기간동안 8회에 걸쳐 국신 禮物로 國王에게 衣類品을 보냈는데 이는 國王 冊封時 사여 관복제를 制度化한 遼朝賜與冠服制度와는 달리 단순히 國信禮物로서 王의 朝, 公, 常, 便禮服이었을 것으로 본다.<sup>9)</sup> 비록 국왕 책봉시 定禮의인 冠服賜與는 없었을지라도, 高麗는 北宋, 遼와 교류당시 宋의 禮制에 준하여 전반적인 복식 제도를 실시하고 禮制를 制定하였다.<sup>10)</sup>

## 2. 唐, 宋式, 高麗의 ‘公服’制

高麗는 唐制를 답습한 통일신라의 복식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百官이 日常의인 公務를 처리할 때, 職品에 따라 服色으로 區分되는 官服으로, ‘公服’을 着用토록 하였다.

太祖는 建國後 할 일이 많아 官號와 服制 등은 통일신라 舊制를 대부분 그대로 답습하였다.<sup>11)</sup> 그러나 17年 가량 존속되어온 泰封國의 官號 등, 백

성들에게 다소 익숙해진 것은 부분적으로 그대로 따랐고.<sup>12)</sup> 통일신라의 公服色인 ‘紫, 緋, 青, 黃’ 四色制<sup>13)</sup> 그대로 답습하였는데, 이와같은 통일신라 관복색 着用制는 太祖18年, 백제와 신라왕조 귀부 이전까지였다. 史料<sup>14)</sup>나 先行研究<sup>15)</sup>를 통해서 보면, 고려는 ‘紫, 緋, 青, 黃’의 통일신라 관복색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緋色’과 同色계열인 ‘丹’色을 同一品階內에 병렬시켜, 自國開國功臣 緋色品階 속에 패망 백제와 신라의 同一品階官職者를 수용, 병존하는 감정적인 방법으로 패망 백제와 신라계를 고려계의 ‘丹’色 아래두는 ‘紫, (丹, 緋), 青, 黃’ 혹은 ‘紫, (丹, 緋), 靑’,의 服色制를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太祖20年 이후의 ‘紫, (丹, 緋), 靑, 黃’ 혹은 ‘紫, (丹, 緋), 靑’, 公服制는 光宗11年 ‘紫, 丹, 緋, 綠’ 四色 公服制定時까지 그대로 着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公服制定 1년전, 光宗10年, 高麗는 後周에 3次の 사절을 보냈고.<sup>16)</sup> 이에 앞서 光宗7年, 後周에서는 薛文遇를 보내와 왕을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로 冊封하고, 이어 百官의 服制를 “華制에 따르도록” 권유 하였는데, 여기서 “華制”란 後周의 制度이다.

光宗7年은 後周의 世宗, 恭帝, 顯德(954-955)時로, 顯德時 後周는 公服, 常服制를 唐制를 이어받아 ‘紫, 緋, 綠’의 3色 公服制로 制定하였다.<sup>17)</sup>

이로보면 고려는 光宗7年부터 後周의 衣冠制度의 개념이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고, ‘後周의 雙翼의 進言에 의해 制定하였다’고 하는 고려의 ‘紫, 丹, 緋, 綠’ 公服色制는 太祖20年 이후 감정적으로

8) 바로앞책. p.968.

9) 高麗史, 顯宗5.9年, 文宗26,32,34, 肅宗8年, 睿宗5년, 10年條.

10) 高麗史, 成宗元年3,4,8年, 德宗3年, 靖宗8年, 文宗12,26,32, 宣宗元年.10年, 睿宗3,8年條.

11) 高麗史, 卷1. 世家, 卷第1. 太祖1年

12) 上同

13) 三國史記, 卷33, 雜誌2, 服色

14) 「朝鮮金石總覽」上.

: 서울特別市, 「서울金石大觀」, 삼성문화출판사. 1987.

: 趙東元編著, 「韓國金石文大系」, 卷一, 圓光大學校出版部, 1979.

15) 黃善榮, 「高麗始定田柴科의 分析」 古考歷史學雜誌, 第7輯, 1991. pp.348-365.

16) 高麗史, 卷2, 世家, 卷第2, 光宗10年.

17) 周錫保, (1984), 앞책, pp.255.

사용하여 온 통일신라의 ‘紫, (丹, 緋), 青, 黃’ 혹은 ‘紫, (丹, 緋), 青’, 公服制를 後周의 ‘紫, 丹, 緋, 綠’의 三色制로 바꾸었던 것이며, 앞서 본대로 高麗의 정치상황적 특성에서 나온 ‘丹’色 服色制가 ‘緋’色의 同一品階 속에 우대制로 竝存하면서 ‘光宗11年制定 ‘紫, 丹, 緋, 綠’의 高麗特性的 服色制를 창출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當時 北方의 遼 역시 ‘紫, 緋, 綠’의 三色服色制였다.<sup>18)</sup>

後周의 뒤를 이어 北宋이 光宗12年(961) 일어나는데 宋은 初期에 ‘紫, 朱, 綠, 青’의 四色公服色制를 채택하였다.<sup>19)</sup>

本節 ‘宋과 高麗당시 高麗服飾制度에 관한 것’은, 麗가 宋, 遼와 北으로 200余年間 교류하면서, 唐, 宋式 ‘公服’인 官服을 光宗 이후 일관되게 着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史料를 통해 이를 밝히고, 同一期間동안 고려의 公服色制, 制, 改定事項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紫, (丹, 緋), 綠 四色公服色制

‘紫, (丹, 緋), 綠 四色公服色制는 光宗11年 이후 成宗14年에서 穆宗元年 사이까지 계속 着用되어진다.<sup>20)</sup>

#### 2) 紫, 緋, 綠, 青 四色公服色制

紫, 緋, 綠, 青 四色公服色制는 成宗14년부터, 穆宗元年사이 制定되어 文宗29-31年사이까지 着用되어진다.<sup>21)</sup>

#### 3) 紫, 緋, 綠, 三色公服色制

紫, 緋, 綠, 三色公服色制는 文宗29-31年 사이, 채택되어져 毅宗朝 祥定禮制時까지 일관되게 着用되어진다.<sup>22)</sup>

〈表3〉은 高麗가 北宋, 遼와 교류 당시 주변 諸國과 高麗의 服色制變遷相을 圖表化한 것이다.

### 第三節 高麗와 遼와의 관계

高麗와 遼는 高麗太祖 天授1年(契丹, 太祖 神冊3年)부터 仁宗3年, 遼의 保大5年(918-1125)까지 207年間 교류하였다. 발해 멸망이전은 고려와 契丹의 영역이 서로 接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었으며, 평등적인 교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契丹이 발해를 멸망시킨 이후, 太祖는 契丹이 발해를 멸망시킨 것을 심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契丹에 대해 적대감정을 취하였다. 契丹이 누차 사신을 파견하여 通好를 請하였으나 계속 거절하고 宋과 通交하자, 契丹은 成宗3年(984) 변경에 와서 사람을 죽이

18) 遼史, 卷56, 志第25, 儀衛志2.

19) 宋史, 卷156, 志第106, 輿服5.

20) 高麗史, 卷72, 輿服志1, 公服條.

: 高麗史, 卷2, 世家, 卷第2, 景宗15, 17, 23, 25年條.

: 高麗史, 卷2, 世家, 卷第5, 景宗元年: 高麗史, 卷78, 食貨志, 田柴科條.

: 高麗史, 卷5, 世家, 卷第5, 景宗2年 4年條.

: 高麗史, 卷3, 世家, 卷第3, 成宗元年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年條.

21) 高麗史, 卷78, 食貨志1, 田柴科條.

: 高麗史, 卷3, 世家, 卷第3, 穆宗元年, 2, 3, 5, 7, 8, 9, 10, 11年條.

: 高麗史, 卷4, 世家, 卷第4, 顯宗, 元年, 5, 7, 8, 9, 11, 14, 15, 17, 19年條.

: 高麗史, 卷75, 選輿志, 卿職條.

: 高麗史, 卷4, 世家, 卷第4, 德宗2, 3年條.

: 高麗史, 卷5, 世家, 卷第5, 靖宗4, 5, 7, 10, 12年條.

: 高麗史, 卷5, 世家, 卷第5, 文宗3, 5, 7, 8, 10, 13, 18, 19, 20, 22, 24, 26, 28, 32, 34, 37年條.

22) 高麗史, 卷10, 世家, 卷第10, 宣宗元年, 2, 3, 9, 11年條.

: 高麗史, 卷10, 世家, 卷第10, 獻宗元年條.

: 高麗史, 卷10, 世家, 卷第10, 肅宗元年條.

: 高麗史, 卷10, 世家, 卷第10, 睿宗3, 5, 7, 8, 9, 11, 12年條.

: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고려국역총서, 高麗圖經」, 1978, 9, 3, 72, 130. pp.68-72.

고 노략질<sup>23)</sup>하는 상황중에 同王4年, 宋에서 감찰어사가 조서를 가져와 「契丹을 칠터이니 적을 평정하는데 힘을 합치라」<sup>24)</sup>고 하였다. 그러나 왕이 천연하자 다시 왕을 달래므로 하는 수 없이 슬습할 것을 허락하자 宋使가 돌아갔다.

이러한 기미를 알아차렸는지 成宗5年(986) 봄 정월 契丹이 사신을 보내와 화친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계속 거절당하자 宋과 고려와의 親和에 고립감을 느끼고 있던 契丹은 군사적 시위를 목적으로 成宗12年(993) 80萬대군으로 고려 북변을 침공하였다. 별 兵交없이 和議를 맺고 압록강의 東地6州를 획득함과 동시에 13年 契丹의 聖宗, 統和年號를 사용하기로 하고 15년부터 契丹의 冊封을 받기시작하여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睿宗3년까지 113년간年間 高麗는 遼의 冊封을 받는다.

#### 第四節 遼와 교류 당시 高麗服飾

##### 1. 遼朝 賜與冠服制

契丹은 成宗15年(996)부터 睿宗3年(1108)까지 113년의 기간동안, 成宗15年1回, 穆宗2年(999), 10年(1007) 2回, 顯宗13年(1002)에는 王을, 14年(1023)에는 太子를 각각 1回씩 冊封하였다. 靖宗代는 5年(1039), 9年(1043) 2回 冊封하였다. 文宗代는 元年(1047), 3年(1049), 9年(1055)에는 王과 太子를 각각 冊封하였다. 또 11年(1057)王과 太子, 19年(1065)王과 太子를 각각 冊封하였다.

宣宗2年(1085) 1回, 肅宗2年(1097)에 王을, 5年(1100)에 元子과 太子를 각각 冊封하였고, 9年(1104)에는 王과 太子를 각각 冊封하여 5回 冊封이 있었고, 睿宗3年(1108) 1回 冊封을 끝으로

총 22회에 걸쳐 冊封하였으며, 그중 元子와 太子 冊封이 7回, 나머지 15回は 國王冊封을 하였다.

##### 1) 朝服賜與制

遼가 成宗15年 冊封時 王을 冊命하고 「...一品の貴階에 올리니...」<sup>25)</sup>라고 한 것을 보아 王은 遼의 一品官職을 받은 것으로, 즉 成宗15年 遼朝는 高麗王에게 ‘開府儀同三司’라는 관직을 내리는데, 遼制 從一品, 九命, 官職이고, ‘尙書令’은 <表1>에서 보면 宋制一品官職이다.

穆宗10年 食邑七千戶, 食實封七百戶를 내리는데 이는 唐, 宋, 遼가 同一하게 嗣王, 郡王, 從一品職에게 내리는 制度이다.<sup>26)</sup>

顯宗13年 冊封時에는 ‘食邑一萬戶’를 사여하는데, 이는 唐, 宋, 遼制가 同一하고, 王, 國王의 正一品職에 내리는 것으로 이 때 遼朝는 처음으로 高麗國王에게 車, 服, 儀物을 같이 사여하였다.<sup>27)</sup>

이때는 契丹이 宋과 檀淵의 盟約을 가진 지 18年 뒤이며, 遼의 新皇帝 등극 2年째되는 해로, 遼는 自國의 儀禮制度에 입각하여 고려국왕에게 예복제를 사여하였을터인데,

遼史에 보면, 皇太子 冊封時 法服制度는 ‘遠遊冠 絳紗袍’의 漢代 朝服制였고<sup>28)</sup> 또한 親王 및 二品以上の 경우, 陪祭, 朝饗, 拜表, 大事에 着用하는 服制가, 遠遊冠 3染冠制로 金附蟬을 加하고, 黑介冑에 靑綬導制에 衣服은 絳紗單衣, 白紗中單, 皂領, 褙, 裾白裙襦, 革帶, 鈎鞬, 假帶, 方心曲領, 絳紗胄, 襪, 舄, 劍, 佩綬制였다.<sup>29)</sup>

이는 遼의 景宗, 乾亨以後(979) 大禮時 비록 北面(遼朝)百官이라도 三品以上の 官吏服制로<sup>30)</sup> 역시 漢式朝服制이다.

23) 高麗史節要, 第2卷, 成宗文懿大王 4年

24) 高麗史節要, 第2卷, 成宗文懿大王 5年

25) 高麗史, 卷3, 世家, 卷第3, 成宗15年.

26) 歷代職官志, pp.1250-1255.

27) 高麗史, 卷5, 世家, 卷第5, 顯宗13年.

28) 遼史, 卷56, 志第15, 儀衛志2, 「...冊封太子儀, 皇太子冠遠遊, 服絳紗袍...」

29) 遼史, 卷56, 志第15, 儀衛志2

30) 上同, 「...乾亨以後 大禮 北面三品以上亦用漢服...」

이상의 考察을 통해서 보면, 遼朝가 高麗王을 冊封하면서 顯宗13년 사여한 冠服制는 皇太子 冊封에 준하였건, 親王 및 二品以上の 官職者 大禮服制에 준하였건, 遼朝 重熙以前 遼의 百官 大禮服制였던 漢式 ‘朝服’制였다. 즉, 宋 역시 國初에는 唐制를 본받아 開寶通禮, 三禮圖 등에 의거 禮制를 확립하고 실시하였으나 太宗의 遼朝복법<sup>31)</sup>이 실패하여 遼에 臣稱하는 상황에서 仁宗代(312)까지 禮服制를 실시할 수 없었던 듯, 「…大祠, 中祠에 獻官을 파견하여 行禮하고, 衣服制에 上下等差의 위계질서가 없을 뿐 아니라 小祠에는 ‘公服’으로 行禮하는등…」<sup>32)</sup>이라 되어있는 것을 보거나 興宗年間에 다시 遼에 매년 貢物을 추가하여 바치기로 하므로 宋과 遼間에 미로소 和平이 찾아오자 宋은 仁宗 年間에 이르러서야 몇차례의 禮制를 비로소 再改定하기에 이른다. 즉 仁宗 天聖2年(1024: 高麗顯宗 15年)<sup>33)</sup>, 仁宗 景祐2年(1036: 高麗靖宗2年),<sup>34)</sup> 仁宗 慶曆3年(1044: 高麗靖宗10年)<sup>35)</sup>에 부분再改定을 하였다. 이로보면, 麗, 宋, 遼 三國은 세력다툼과 相爭속에 三國 모두 禮制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三國 開國後 80余年 동안 朝, 公服 등, 小禮服으로 行禮하는 것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

顯宗19년, 太子冊封時와 靖宗5年 국왕 冊封時 冊文에 「……字(王)에 加하였으며…秩品을 三師에 올리고…」<sup>36)</sup>라 되어 있어 正, 從一品 官職을 내렸으나 冠服사여는 없었다.

최초의 관복사여 22년 뒤, 靖宗9年, 국왕 冊封時, 遼는 고려왕에게 官職과 車, 服, 冠, 劍, 印, 綬 등을 사여한다. 이상의 고찰결과를 종합하면, 최초의 관복사여가 있었던 顯宗13년과 22년 뒤 靖宗9년 책봉시 국왕에게 사여한 관복제는 “漢式 朝服制”를 사여한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 2) 驚冕八旒(七章)服賜與制<sup>37)</sup>

文宗9年 冊封時, 契丹이 王을 冊하고 詔하기를 「…朝冊에 進加하여 大師를 昇扶하고 食邑도 贈封하여…」라 하고, 또 「…車輅, 冠服, 圭, 劍 등과 特賜諸物은…」이라하고, 冊文에 「…驚冕八章으로…象輅九旒로 그 文彩를 밝게한다…」<sup>38)</sup>로 되어있다.

文宗9年은 遼 道宗 清寧元年으로 遼帝는 즉위 후 「…大慶을 같이 함에 있어 큰 공훈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고…」<sup>39)</sup>라 하여 스스로 즉위를 自視하며, 고려왕을 加冊하고 사여관복제를 보낸 것이다.

여기 보이는 ‘驚冕八章’制는 ‘驚冕八旒’制의 오기였을 것으로 보며, 이는 唐, 宋制 二品服으로, 唐, 宋制에 의하면, ‘驚冕八旒’服制는 ‘七章服制’이다. 사여관복 중 ‘車’制가 ‘車輅’制로 바뀌었는데, 같이 보낸 象輅九旒制는 唐制에 의하면 親王 및 武品 一品服制로 親王 및 一品官職服制이다.<sup>40)</sup>

그러니까 二品以上 官職者 服制에 一品官職者

31) 太宗大王興國4年(979), 雍熙 3年(986) 복법을 시도하였으나 大敗함.

32) 宋史 卷152, 志第105, 輿服4, 「…慶曆3年…太常博士余靖言…小祠則公服行事…」

33) 宋史 卷152, 志第105, 輿服4.

34) 宋史 卷152, 志第105, 輿服5.

35) 宋史 卷152, 志第105, 輿服3.

36) 高麗史, 卷6, 世家, 卷6, 靖宗5.

37) 高麗史에는 ‘驚冕八章服’으로 되어있으나 唐, 宋史 輿服志에 보면 驚冕八章服은 ‘七章服’으로 되어 있다. ‘驚冕八旒’의 오기인 것으로 사료됨.

38) 高麗史, 卷8, 世家, 卷8, 文宗2.

39) 上同

40) 遼史, 卷55, 志第25, 校散記: 唐書, 卷24, 志第14, 車服, 「…親王及武品漆品有象路…」

41) 笏은 唐制는 五品이상인 象牙를 사용하였고, 모양도 上圓下方의 形制였고, 宋制는 文散官 五品이상인 象牙를 사용하였나 하였으니, 이에서 보면 遼는 고려에 象牙材의 笏을 보냈을 것으로 본다  
宋史, 卷153, 志第106, 輿服5.

의 ‘車輅’제를 보낸 것이며, ‘圭’가 첨가되었는데 ‘圭’는笏이다.<sup>41)</sup>

‘驚冕’제는 唐制에 의하면, 八旒七章制인데, 天子의 ‘有事遠主’服이며 諸臣二品官職者 大禮服인데, 靑衣纁裳에 七章文을 둔다. 즉,

①華虫, 火, 宗彝 3章은 衣에 있고, 藻, 粉米, 黼 4章은 裳에 있다.

②銀裝劍에 水蒼玉을 佩用한다.

③紫綬를 佩用하는데 紫色 바탕에 紫, 黃, 赤色으로 짜며, 길이 1丈6尺, 넓이 8寸 크기에 180首이다. 革帶를 하고 뒤에 金鏤繫囊을 착용한다.

④赤舄에 朱襪을 착용한다.<sup>42)</sup>

宋制의 驚冕七章制는, 慶歷3年以前에는<sup>43)</sup> 앞서고찰한대로 ‘公服’으로 大禮服을 대신하였고, 元豐定制가 「王의 三公 大學士이상, 侍祠服이며, …宰相등의 二品官이 着用하는 大禮服」<sup>44)</sup>인데

驚冕八旒冠服制는 ①每旒에 八玉을 끼우는데 朱, 白, 蒼三彩色으로 한다.

②角簪, 三色紵를 느린다. 紵는 紫羅로 한다.

③衣服은 靑黑羅로 만들고, 華蟲, 火, 虎, 彝 三章을 둔다.

④裳은 纁色으로 하되 길은 羅로 하고 안을 緡으로 한다. 七幅으로 만들고 繡로 藻, 粉, 黼, 黻, 四章을 둔다.

⑤大帶, 中單을 着用한다.

⑥佩玉은 藥珠를 꿰서 만든다.

⑦綬는 絳錦으로 만들고 銀環을 부착한다.

⑧鞶에는 繪로 山, 火 二章을 둔다.

⑨革帶는 緋羅로 길고 金塗銀裝飾을 하였다.

⑩석과 말은 옛 제도와 같다<sup>45)</sup>고 되어있다.

이로보면, 遼朝는 重熙年間에 이르러서 三國의

和平기운에 입각하여 漢式祭服大禮服制의 격식을 갖추어 착용하게 됨으로 비로소 高麗王에게 이에 준한 二品이상 官職者의 驚冕八旒冠服制의 大禮服制를 사여하게 된 것이며 宋朝 역시 이때서야 祭服을 갖추고 等差를 두었다.

### 3) 九旒冕 九章服 賜與制

驚冕八旒(七章)服制 賜與 3年 뒤, 文宗11년, 遼는 王을 冊封하고, 冊文에 「…位는 五侯, 九伯에 으뜸이요…」<sup>46)</sup>라 하였고 王을 ‘兼尙書令’의 一品服인 九旒冕服 制를 사여 하였을 것으로 본다.

8年 뒤 文宗19년 契丹에서는 국호를 ‘契丹’에서 ‘遼’로 바꾸고, 연호를 咸雍(1065-1074)으로 바꾸면서, 咸雍원년, 다시 王을 加冊하고 이번에는 王과 태자에게, 九旒冕, 九章服, 王에게 玉圭, 玉冊, 象輅등의 名示가 분명한 親王, 諸臣一品服을 보내고 태자에게는 牙笏, 革輅, 竹冊 등을 보낸다.<sup>47)</sup>

遼史에 보면, 황제는 건국초부터 漢式 大禮服制인 袞冕旒, 12章服制를 착용하였고<sup>48)</sup>, 諸臣은 重熙年間(1032-1054: 高麗德宗元年-文宗8年)에 이르러 大禮服으로 漢式祭服制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비록 遼史 儀衛志에는 없을지라도, 親王, 혹은 諸臣一品漢式大禮祭服을 고려국왕에게 사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다.

高麗에 보면, 九旒冕 九章服制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唐, 宋制에 입각하여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唐制는 황태자가 冠冕에 白珠로 九旒, 紅絲, 組纓, 犀簪導, 黑衣, 纁裳, 九章服制이고<sup>49)</sup> 郡臣一品이 冠冕에 青琪珠三彩玉, 綠組纓,<sup>50)</sup> 寶飾角簪導 靑衣, 纁裳, 九章服制로 수식 재료상의 차이를 볼

42) 舊唐書, 卷24, 志第14, 車服.

43) 宋史, 卷152, 志第105, 如服4.

44) 上同

45) 上同

46) 高麗史, 卷8, 世家, 卷8, 文宗2.

47) 高麗史, 卷8, 世家, 卷8, 文宗2.

48) 遼史, 卷56, 志第15, 儀衛志2.

49) 唐書, 卷24, 志第14, 車服, 皇太子之服.

50) 上同, 群臣之服, 「…以組爲纓, 色如其綬…綠戾綬…」



수 있다. 宋初의 制度가 皇太子가 冠冕에 白珠九旒, 紅絲組, 犀簪導, 青羅衣, 紅羅裳, 九章服制이고<sup>51)</sup> 諸臣一品 九旒冕服制는 塗金銀花額, 犀, 玳瑁簪導, 青羅衣, 緋羅裳, 九章服制<sup>52)</sup>이다.

같이 보낸 玉圭와 玉冊의 경우, 앞서 본대로 唐, 宋制 모두 五品 이상이 牙笏이므로, <sup>53)</sup>高麗國王에게 보낸 ‘圭’는 牙笏이어야 하겠으나 玉製를 보냈다.

同王 同年, 태자에게 내린 九旒冕, 九章服制는 ‘特進’이라는 唐, 宋 正二品官職과 사여물품으로 보아, 二品官인 宋의三公服制에 준한 九章服制였을 것으로 본다.

19년 뒤, 宣宗은 즉위시 이때의 九旒冕, 九章服制를 착용하고 등극하고<sup>54)</sup> 1년 뒤 宣宗2年, 肅宗2年, 同王9年, 그후 4년뒤 睿宗3년까지 高麗國王은 遼朝의 책봉과 사여관복을 받는데, 이때 사여관복제는 문종19년제에 준한 親王, 諸臣一品的 九旒冕, 九章服制였을 것으로 보며, 태자에게 내린 숙종5,9년 사여복제 역시 二品官職에준한 九旒冕, 九章服制였을 것으로 본다.

### 第三章 結論 및 要約

1) 高麗와 北宋과의 관계는 光宗13年(北宋건국4년 되던 해) 宋太祖 建德1년부터 欽宗 靖康元年(고려仁宗4년)까지(963-1126) 164년간 교류하였다.

그러나 164년간 외교관계가 일관되게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며, ①光宗13(963年·成宗13年(994)까지 32년간은 순조롭고 정상적인 외교관계로 상호 互惠的이었으며, 宋이 高麗의 軍援을 필요로 하였다. 穆宗6年(1003-顯宗9年(1018)까지는 高麗가 契丹의 침공으로 宋의 軍援을 필요로 하였으나

宋 역시 契丹과의 관계로 內的 안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高麗, 宋의 관계는 지속적이고 원만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단절되고, 文宗26년 宋의 요청으로 국교재개시까지는 정치적인 관계는 단절되고, 경제, 문화적인 교류만 있었다. ②文宗25년(1071)-仁宗4年(1126)까지는 宋이 高麗를 배후 세력으로 삼으려고, 高麗에 대해 호의를 많이 베풀었고, 高麗 역시 이에 적극 호응하여 적극 외교 관계를 펼쳤으나 금에 의해 北宋이 멸망으로, 관계는 단절되었다.

2) 北宋과 교류 당시 高麗는 光宗13년부터 成宗11년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宋의 一品에서 三品 범위의 官職과 勳爵, 號를 賜與하는 국왕책봉을 받으나 책봉시 冠服賜與는 없었다. 그러나 164년간의 교류기간동안 8회에 걸쳐 國信禮物로 국왕에게 衣類品 사여는 간헐적으로 있었으며, 이는 왕의 朝, 公(常), 便禮服制에 준하였다고 본다.

3) 비록 高麗는 北宋과 국교의 通斷을 반복하며, 지속적인 외교관계는 갖지 못하였으나 복식제도 전반에 관한 것을 비롯 모든 禮制는 唐, 宋代 제도에 입각하여 제정하였다.

4) 高麗는 唐制를 답습한 統一新羅 百官의 官服인 ‘公服’制를 北宋, 遼와 교류 당시 200여년간을 일관되게 착용하는 사례를 사료를 통해 고찰하였으며, ⑤新羅 고유의 ‘紫, 緋, 青, 黃’의 服色制는 統一新羅와 後百濟가 高麗에 귀부하여 後三國이 통일되기 전까지 高麗에서 착용되어졌다. ⑥太祖20년 이후부터는 高麗系 緋衫 着用者를 귀부해 온 統一新羅와 後百濟 緋衫 착용자 신분 위에 두되, 이들 계층을 ‘丹’色の ‘緋’色과 同一계열색으로 묶

51) 宋史, 卷156, 志第104, 輿服3.

52) 宋史, 卷152, 志第105, 輿服4.

53) 宋史, 卷153, 志第106, 輿服5.

54) 玉冊製는 宋史에 보면, 「冊製는, 玉冊이 玳瑁으로 만들고, 簡 길이 1尺2寸 크기에 넓이는 1寸2分 크기이다. 金絲로 서로 연결해서 묶어주고 머리부분과 아랫부분은 帶로 묶어주었다고 되어있는데 이와같은 제도를 遼朝는 고려에 보낸 것이다.

宋史, 卷154, 志第107, 輿服6.

55) 高麗史, 11, 10, 世家, 卷10, 宣宗1.

어, '紫, (丹, 緋), 青, 黃' 혹은 '紫, (丹, 緋), 青'의 公服色制의 服制를 光宗10년까지 착용한다. ㉔ 光宗7년, 後周의 '紫, 緋, 綠' 3色 公服色制의 制定상황과 관련, 後周의 권유를 받아들여, 光宗11년, 高麗特性的 '紫, (丹, 緋), 青, 黃' 혹은 '紫, (丹, 緋), 青'의 服色制 '紫, 丹, 緋, 綠'의 4色 公服色制로 바뀐다. ㉕ '紫, (丹, 緋), 綠'의 光宗11년 制定 服色制는 成宗 14년에서 穆宗元年사이 紫, 赤, 綠, 青의 初期 宋式 服色制를 받아들여, '紫, 緋, 綠, 青'의 4色 公服色制로 바뀐다. ㉖ '紫, 緋, 綠, 青(淺碧과 深青의 分別有)'의 4色 公服色制는 高麗 文宗 30-31년 사이 宋 神宗元豐元年 制定 '紫, 緋, 綠'의 3色 公服色制로 바뀌어 南宋과 金과 교류 당시인 毅宗朝 詳定禮制時까지 이어진다.

5) 高麗와 遼는 高麗 太祖天授1년(918)부터 (契丹 太祖 神冊3年) 仁宗3年(遼 保大 5年:1125)까지 207년간 교류하였다.

6) 遼와 高麗는 高麗 成宗15年(996)부터, 睿宗3年(1108)까지 113년 기간동안 총22회, 그중 元子, 太子 7회, 國王 15회의 책봉을 받았다.

7) 遼는 高麗國王에게, 一, 二品官職과, 爵勳, 號를 내렸으며, 顯宗13年 靑龍시 처음으로, 冠服制 賜與를 竝行, 이후 中原建立 漢族王朝나 東北方 異民族王朝의 高麗國王 賜與冠服制의 定例化된 제도를 이룬다.

가) 遼朝 賜與冠服制는 顯宗13年-文宗8년까지 35년간은 漢族王朝 親王 및 二品以上 官職品官者의 '朝服'制를 사여하였는데 이는 麗, 宋, 遼, 三國이 건국초 80여년간 相爭 중에 禮制를 제대로 갖추어 行禮하지 않았고, 三國 모두 朝, 公服制의 小禮服으로 行禮하였으므로 遼朝 對高麗賜與服制도 이에 준한다.

나) 文宗9年-18년까지 10년간은 唐 및 宋의 二品官職 및 王의 三公의 大禮服인 '冕八旒七章服'制를 사여하는데, 이때는 宋, 遼가 和親을 약속하였고, 麗와 遼가 和親을 도모하여, 표면적인 親和분위기가 국제적으로 조성되어 三國 모두 비로소 行禮時 法度を 따르게 되면서 이에 준하였던 것이다.

다) 文宗19년 이후부터 睿宗3년까지는 一品 官職者服인 '九旒冕, 九章服制'를 사여하였고, 이후 高麗國王 對 中原建立王朝 賜與服의 品級으로 定例化 되었던 것이다.

## 參考文獻

### 〈國內書〉

- 民族文化추진위원회, 「國譯, 高麗史節腰」 1977
- 亞細亞文化社, 「高麗史, 上·下 講讀教材」, 1978.
-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소, 「譯註, 高麗史」, 1982.
- 民族文化추진위원회, 「古典國譯총서, 高麗圖經」, 1978.
- 金渭顯, 「遼金史研究」, 裕豐文化社, 1986.
- 金基雄, 「羅末麗初 政治社會史의 理解」, 考古歷史學志, 第7輯.
- 朴敬子, 「高麗時代鄉吏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請求論文, 1986.
- 서울 特別市, 「서울 金石文大觀」, 三省出版社, 1987.
- 李基白, 「高麗州縣考」, 歷史學報, 第29輯, 1965.
- 李基白, 「新羅私兵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4.
- 李祐成, 「麗代百姓考」, 歷史學報, 第14輯.
- 趙東元 編著, 「韓國金石文大系」, 卷一, 圓光大學校出版部, 1979.
- 韓祐勳, 「麗末의 其人選上規制」, 歷史學報, 第14輯.
- 黃善榮, 「高麗始定田紫料의 分析」, 考古歷史學雜誌, 第7輯.

### 〈中國書〉

- 舊唐書, 景仁文化社, 1977.
- 新唐書, 景仁文化社, 1977.
- 宋史 1-6卷, 景仁文化社, 1979.
- 遼史, 景仁文化社, 1979.
- 上海古籍出版社, 「歷代職官表 上·下」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4.

## ABSTRACT

# A Study on the clothing systems on several countries related with Korea(Kyoro)

Prof. Yim, Myoung-Mi  
Dept. of Home Economics  
Dong-Duck Women's Univ.

1.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Buk-Song had maintained for 164 years(964 1126 A.D). The period of relationship was from KwangJong Year 13(4 years after establishing Buk-Song), Song Tae-Cho 1 year, to HeumJong Cheong Dang 1st year(InJong 4 years in Korea).

Author divides into three periodic terms, and remarkable diplomatic facts are as follows :

- 1) KwangJong year 13(963 A.D) SungJong year 13(994 A.D) : Normal relations, Song needed Korea's armed support.
- 2) MokJong year 6(1003 A.D) HyunJong year 9(1018 A.D) : Not steady relations and broke up, by MunJong year 26, Dang requested to resume the diplomatic relations.
- 3) MunJong year 25(1071 A.D) InJong year 4 (1126 A.D) : Song utilized Korea as a back supporter, but Song destructed by Keum.
2. Korea was donated knightage without official clothing by BukSong 10 times(KwangJong year 13 SungJong year 11). However during 164 years, Song presented some clothings Korea friendly.
3. Even though Korea could not continue the steady diplomatic relations, Korea had been influenced the social systems including clothing systems by Dang. Song dynasty.
4. The author studies historical materials which show that TongilSh-Shinra adapted social systems of Dang dynasty including clothing systems, which was succeeded to Korea for 200 years. Details are as follows :
  - 1) Original clothing color-systems which were

Ja(purpil), Cheong(blue), Hwang(yellow), Pi, called 4-colored-system, of Tongil-Shinra, was succeeded to Korea. Above mentioned clothing systems was utilized until reunification of three countries of Korean peninsula.

2) When Korea unified the certificate of Pisam holder class from Hoo-Bakjae, and Tongil-Shinra. Korean holders were superior from those of Tongil-Shinra and Hoo-Bakjae. These two classes used same series-color 'ja, (Dan, Pi), Cheong(blue), Hwang(yellow)', or 'Ja, (Dan, Pi), Cheong' and lasted to KwangJong year10 as a official clothing.

3) KwangJong year 7, according to the three colored official clothing system of Hooju, accepted Hooju's. KwangJong year 11, that shifted 'Ja, (Dan, Pi), Cheong, Hwang', or, 'Ja, (Dan, Pi) Cheong', to 'Ja, Dan, Pi, Rok(green)'.

4) The clothing systems which are 'ja, (Dan, Pi), Rok which established KwangJong year 11 shifted to Song's, Ja, Ju(orange), Rok, Cheong, which had happened SungJong year 14 to MokJong 1st year.

5) 4-colored system('Ja, Pi, Rok, Cheong (distictable : sky blue, ocean blue)') shifted to 3-colored system which established Song ShingJong 1st year, which succeeded to Nam-Song and Keurn.

5.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Yo had maintained for 207 years(918 1125 A.D). The period of relationship was from TaeJo 1st year to InJong year 3.

6. Yo, and Korea were called for king(15 times), prince(7 times).

7. Korea was donated knightage by Yo. The time when HyunJong year 13, Yo donated official clothing. From that time had used to do. The author divides into three periodic terms and discribes the shifting the formal clothing systems. Details were as follows :

1) HyunJong year 13 MunJong year 8 : Even donating clothing systems from Yo had

maintained for 35 years, Yeo, Song, Yo, three countries had not have formal clothing, because they had been on the struggling. So that Korea had followed the same way of informal clothing.

- 2) MunJong year 9 18 : Yo donated the formal clothings to Korea for the King. Diplomatic

condition was in the control, so that whole three countries used formal clothing.

- 3) MunJong year 19 YeaJong year 3 : Korea was donated 'Kuryumyun Kujangbokje', which became the formal clothings vs China.



〈圖1〉麗, 宋, 遼 교류당시 全圖.

〈表1〉宋 品官職別 官職名

官 品 名		職 名
官品名	一品	尚書令, 太師, 太傅, 太保, 太尉, 司徒, 司空, 太子, 太師, 太子, 太傅, 太子, 太保,
	二品	中書令, 侍中, 左右僕射, 太子少師, 太子少傅, 太子少保, 諸冊府丞, 左右金吾衛上將軍

1) 宋史, 卷152, 志第105, 輿服4, 官品分別, 諸國服上

〈表2〉麗·宋 初期교류당시 30年間사이 宋朝 高麗王冊封事項

★表 文項은 高麗史에는 없으나 宋史에는 있음

高麗王名	A·D	宋	遼	冊命使·官職名	冊命使名	高麗王에게 내린 官職名	食邑貢封內容	비 고
光宗 15	964	建德 2	穆宗應力 14		時賢	推誠順化 保義功臣	加食邑七千戶	海路에 冊命使 일행의 90名이 역사함
• 23	972	開寶 5	寶寧 4			推誠順化守節保義功臣	食邑추가	고려가 송에 方物傳하자 宋帝가 王에게 詔勅으로 내림
景宗元年	976	太宗太平興國元年	• 8	左司御副率 司農侍丞	干延超 徐昭文	光祿大夫 檢校太傅,使持節 玄菟州諸軍事,玄菟州都督大順軍使	食邑三千戶	
景宗 2	977	• 34	• 9	太子中元 直舍人院	張洎	檢校太師		宋史卷487,列傳第246外國3,高麗
• 3	978	• 4	乾亨元年	拱奉官 門衛侯	王 傳	特中	食邑一千戶	
成宗2	983	• 8	聖宗 統和元年	光祿少卿 將作小監	李巨原 孔維	光祿大夫 檢校太保 使持節 玄菟州諸軍事 玄菟州都督玄大順使事上柱州國 高麗國王	食邑二千戶	
• 4	985	雍熙 3	契丹統和3	太常卿 和青監	王 著 呂史仲	檢校太傅 사지절현도주제군사현도주 도독 중대 순국사, 상주국 고려국왕	食邑一千戶	
• 7	988	端拱元年	• 6	禮部侍郎 左諫議	呂端 呂祐之	檢校太尉, 중대 순군사 지절현도주 제군사 현도주도독 상주국 고려국왕	食實封五百戶	
• 9	990	淳化 •	• 8	光祿卿 太常少卿	紫成務 趙化成	推誠 順化功臣, 기타 前과 同一함	食邑一千戶 食實封四百戶	
• 11	992	• 3	• 10	光祿卿 秘書少監	劉武 陳靖	檢校太師, 기타 前과 同一함	•	
睿宗 5	1110	大觀 4	遼 乾統10	병부상시 증서사인	王襄 張都昌	‘樞’(대리의 의미)字를 빼고 ‘寅’王의 禮우를 한다는 魏筆을 보내고 冊封은 하지 않음		



〈表4〉遼朝高麗國王冊封一覽表

高麗王名	A·D	宋	遼	冊命使·官職	冊命使名	高麗王에게 내린 官職名	食邑食實封內容	賜與冠服內容	비고
成宗15	996	至道2	契丹 聖宗統和14	翰林學士 忠正軍節度使	張幹 趙執萬	開府儀同三司 尙書令, 高麗國王			
穆宗2	999	眞宗咸平2	· 17	右常侍	劉楨	尙書令			加冊
· 10	1007	景德4	契丹 聖宗統和25		肅律延貴	守義 保推誠義聖功臣 開府儀同三司 守上서령겸 정사령 상주국 고려국왕	食實封七百戶 食邑七千戶		
顯宗13	1022	仁宗 乾興元年	成宗 太平2	御安大夫上將軍	肅懷禮	개부의 동삼사 상서령 상주국 고려국왕	食邑一萬戶 食實封一千戶	車, 服, 儀物	契丹 年號 始行
· 14	1023	仁宗 天聖元年	重3	左散騎常侍	武百 耶律克恭	輔國大將軍檢校太師守太保兼侍中 高麗國公			太子
靖宗5	1039	· 寶元2	興宗重熙8	大理卿	韓寶衡	개부의 동삼사 수태보 겸시중 상주국 고려국왕 韓忠保義奉國功臣號	食邑七千戶 食實封一千戶		
· 9	1043	· 慶歷3	· 12	監門衛上將軍 禮部侍郎	肅懷微 韓紹文	수태부겸 중서령 同德致理四字功臣號 散官과 勳爵은 前과 同一	食邑三千戶 食實封三千戶	車, 服, 冠, 劍 印綬	
文宗元年	1047	· 7	· 16	福州管内觀察使	宋瑋	개부의 동삼사 수태보 겸시중, 상주국 고려 국왕 匡時致理肅節功臣號	食邑七千戶 食實封一千戶		
· 3	1049	仁宗皇祐元年	· 18	千牛衛上將軍 御使大部	肅雅德 王守道	수태부겸 중서령 고려국왕 資忠奉上四字功臣號 陪와 勳은 前과 同一	食邑三千戶 食實封三千戶	車, 服, 冠, 劍 印綬, 衣帶, 馬鞍	
						國時致理肅節資忠奉上功臣 開府儀同三司 守太保 兼中書令 上柱國 高麗國王	食邑一萬戶 食實封一千三百戶		
49	1055	仁宗至和2	道宗 清寧元年	匡義軍節度使 景義卿	耶律革 陳凱	守太師도 冊封, 다른 것은 前과 同一	食邑五百戶 食實封五百戶	車輅, 冠服, 圭 劍(駕冕八章) (象輅九旒)	
·	·	·	·	利州刺史	肅錄	三韓國公 國時致理顯郡資忠奉上功臣開府儀三司 守太師 兼中書令 上柱國 高麗國王	一萬百千戶 食實封一千八百戶		太子



高麗王名	A·D	宋	遼	冊命使·官職	冊命使名	高麗王에게 내린 官職名	食邑食實封內容	賜與冠服內容	비고
-	1057	仁宗嘉祐2	- 3	天德軍節度使 左天牛衛大將軍	肅繼從 王守出	김상서령	食邑五千戶 食實封二百戶 食邑二萬戶,食實封二萬戶	冠服,車輅,銀器 匹段,鞍馬,弓矢	
-	-	-	-	利州管内觀察使 司觀御	肅素 柴德恣	順義軍節度使朔武登州觀察處置等使 崇祿大夫檢校太尉同中書門下平章事 使持節朔州諸軍事行朔州刺史上柱國 三韓國公	食邑三千戶 食實封五百戶		太子
- 19	1065	英宗 治平2	遼 道宗 咸推元年	寧國軍節度使	耶律迪 益州管内觀察使	守正保義四字功臣 나미지 前同	食邑三千戶 食實封三百戶	九旒冠,九章服,玉圭 玉冊,象笏,衣對,匹段 弓矢,鞍馬	
-	-	-	-	利州管内觀察使 衡尉節	耶律迪 麻晏如	特進,김시중 기타同		九旒冠,九章服 牙笏,玉冊,黃輅 衣對,匹段,鞍馬 弓矢,酒	太子
宣宗2	1085	神宗 元豐8	遼 大安元年	保靜軍節度使 兼錄卿	숙강 은고	특진검교대사검증서령상주국고려국왕	食邑一萬戶 食實封一千戶	冕流冠,車馬,圭,印 衣帶,匹段	
肅宗2	1097	紹聖4	寺陞3	臨海軍節度使 太僕卿	耶律思齊 李三相	특진검교대사검증서령상주국고려국왕	食邑千戶 食實封七百戶	玉冊,圭,印 冕流冠,車輅,章服 鞍馬,匹段	
5	1100	元符3	- 6	秘書少監	張臣言			衣服,匹段,銀器	太子
-	-	-	-	高州管内觀察使 衡南卿	熊好古 高士寧	순의군절도사 작분 순주 관찰치등시승록 대부검교대부동문준서문하평장사시지결사 주책군사행각사사상주국살한국공	食邑三千戶 食實封五百戶	印綬,車輅,衣帶 匹段,鞍馬,弓矢	太子
9	1104	崇寧3	乾統4	安國郡節度使	耶律嘉謨	忠勤奉國功臣開府儀同三司守太尉兼中書 令上柱國高麗國王	食邑七千戶 食實封七百戶	車輅,衣對,匹段 鞍馬,弓矢	
-	-	-	-	益州管内觀察使 地處卿	耶律師傳 張繼	순의군절도사상분주관찰치등시승록 검교대부검교대부동문준서문하평장사시지결사 상주국살한국공	食邑三千戶 食實封五百戶		太子
睿宗 3	1108	大觀2	- 8	海安軍節度使 益州管内觀察使	蔣良 李仁治	守太尉兼中書令		冠冕,車輅,衣帶 匹段,鞍馬	